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7

바구니에 더 내려 온 아기

(출애굽기 1:1~2:15)






수백 년이 지나, 사람들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죠.

그러자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만 보자... 이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도
저 이스라엘인들이 더 많아지는거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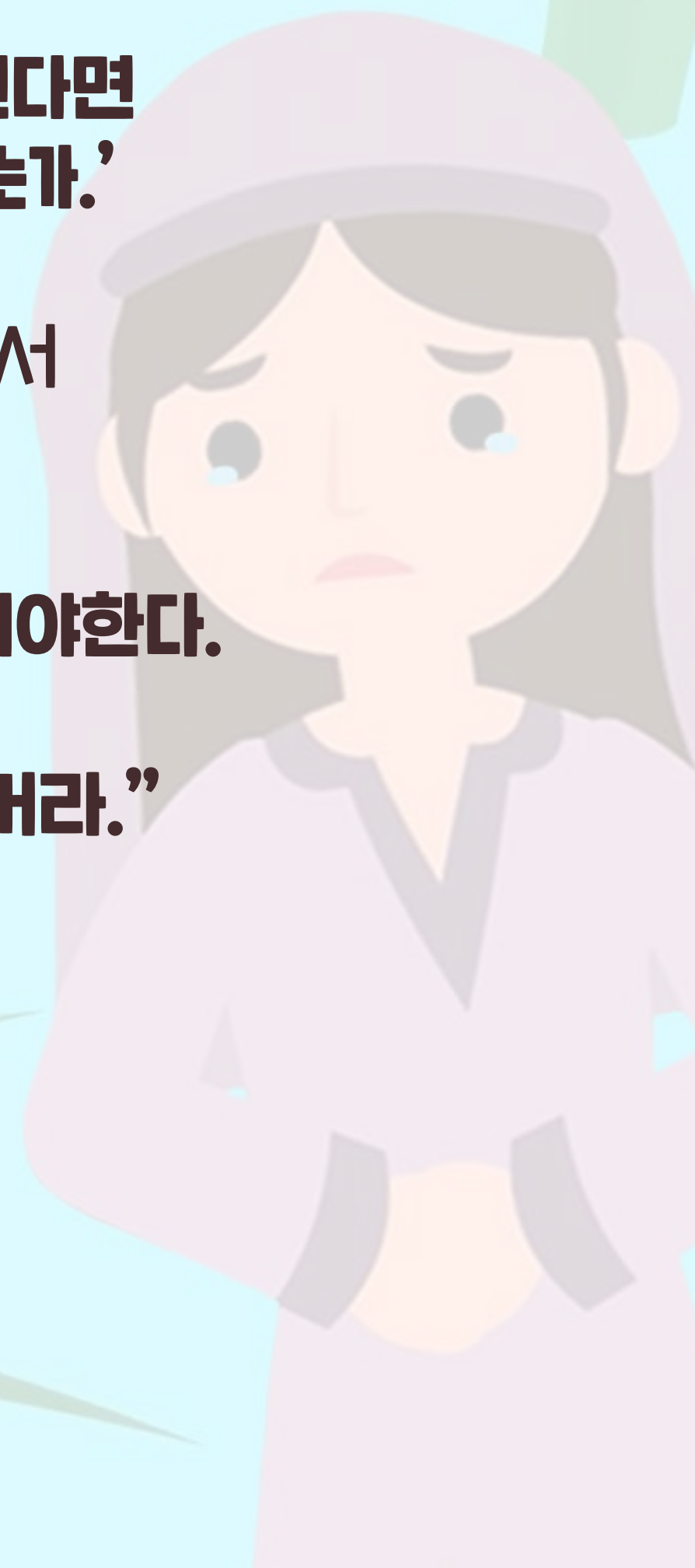





**‘저들이 딴 맘먹고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때야말로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파라오는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딴 맘 먹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벼 배바지게 힘든 일들을 몽땅 맡겨 버리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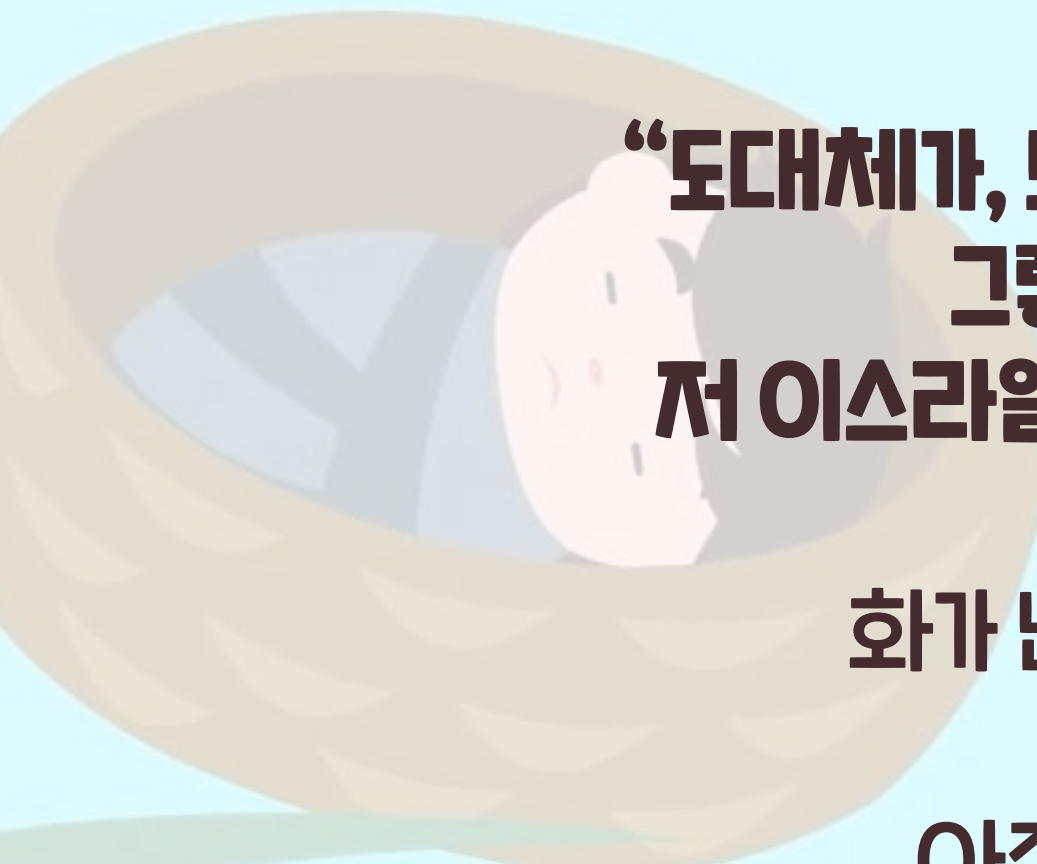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성을 짓는 일을 시켰어요.

엄청난 양의 흙을 퍼 나르고
뜨거운 화덕에서 벽돌을 굽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밭농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갔죠.




A baby is shown inside a woven basket, which is placed on the ground. The baby is wearing a blue and white striped garment.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a yellow sun and green plants.

**“도대체가, 도대체가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저 이스라엘인들이 왜 더 많아지난 말이다!”**

**화가 난 파라오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아주 끔찍한 명령이었죠.**

**“들거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 강 속에 던져버려라.
저들의 자손이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 하도록 말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나일 강!
그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악어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무시무시한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죠.


“응애! 응애!”

그리고 그 끔찍한 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는 잘생긴 아기를 가지고도
축하받지 못했죠.

**모세도 곧 있으면
죽임을 당할 처지였으니까요.**

**모세의 엄마는 애써 애써 모세를
세 달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흑흑흑... 우리 아가 모세야
더 이상은 너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구나...
저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손에
너를 죽게 할 순 없단다.
차라리, 강물을 타고 멀리 멀리
떠나버리렴...꼭 살아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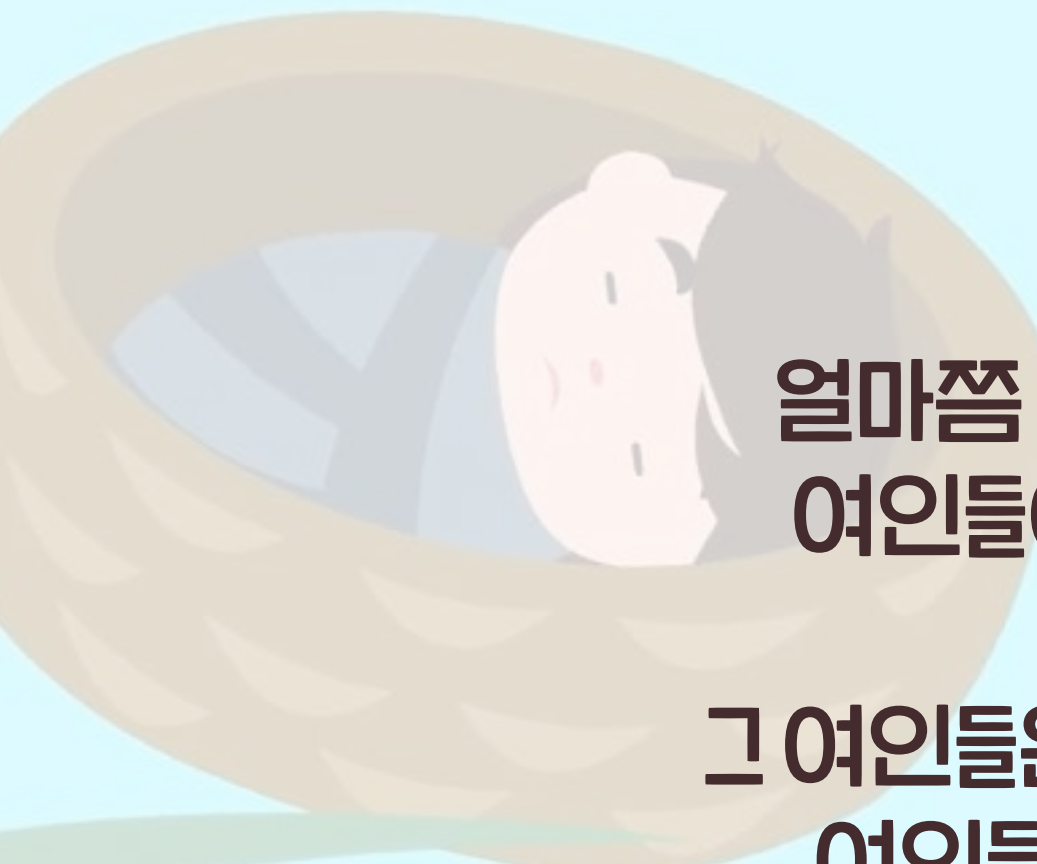
An illustration of a baby wrapped in a blue cloth, lying in a brown woven basket. The basket is floating on a light blue background that represents water. In the upper right, there are stylized yellow and orange shapes representing the sun or sky. In the lower left, there are green reeds with small red berries.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었는데, 모세의 엄마는
파피루스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 안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어요.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강가를 따라 바구니를 계속 쫓아갔죠.





얼마쯤 갔을까,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은
여인들이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여인들은 다름이 아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도 있었답니다!

**“어머? 저 바구니는 뭐지”
얘들아, 저걸 이리로 가져와 보겠니?”**



“응애! 응애!”

바구니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죠.

**“어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딱하기도 하지.
이 아기를 누가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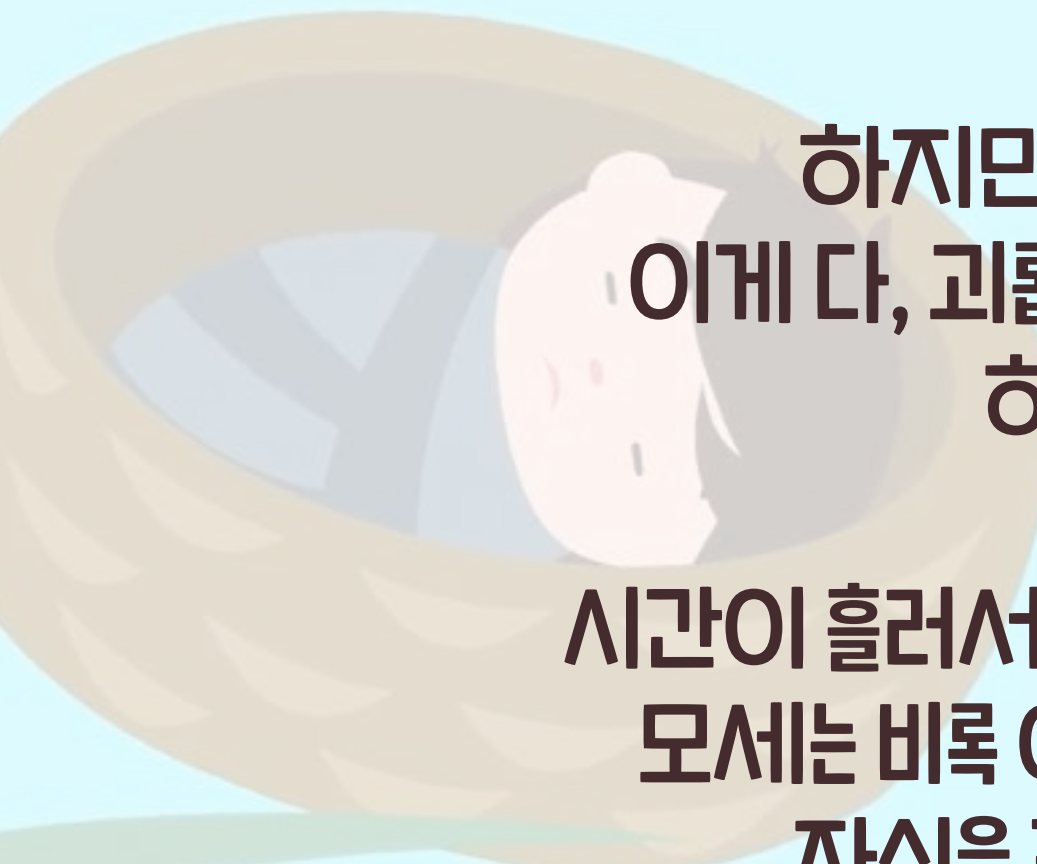
다행히 이집트의 공주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A baby with dark hair is lying in a brown woven basket, wrapped in a blue cloth. The basket is placed on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stylized green plants and a yellow sun in the upper right.

**“엄마! 엄마! 모세가 살았어요!
우리 모세가 살았어요!”**

누나 미리암은 자신이 본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말해주었고, 모세의 엄마는 단숨에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기의 유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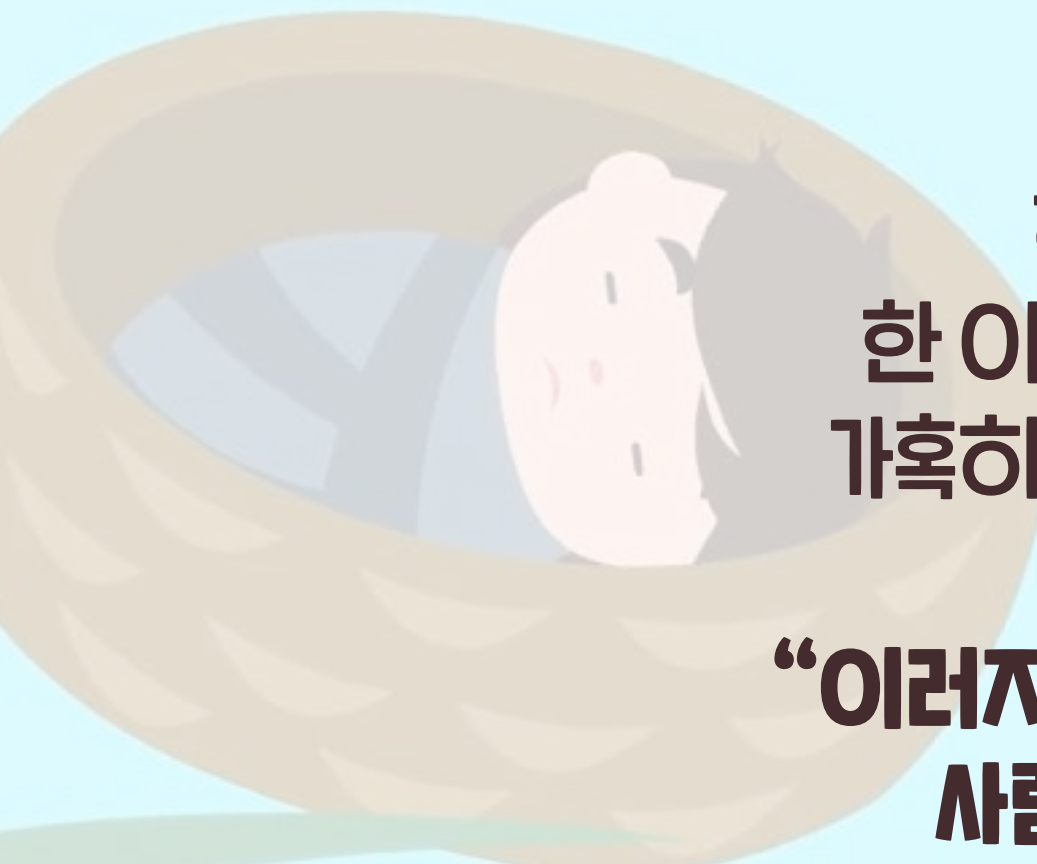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아기가 또 있을까요?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이제 늙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죠.

**“나는 이집트 왕족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집트인들처럼 태양이나 나일 강을 섬기는 일은
절대, 절대 하지 않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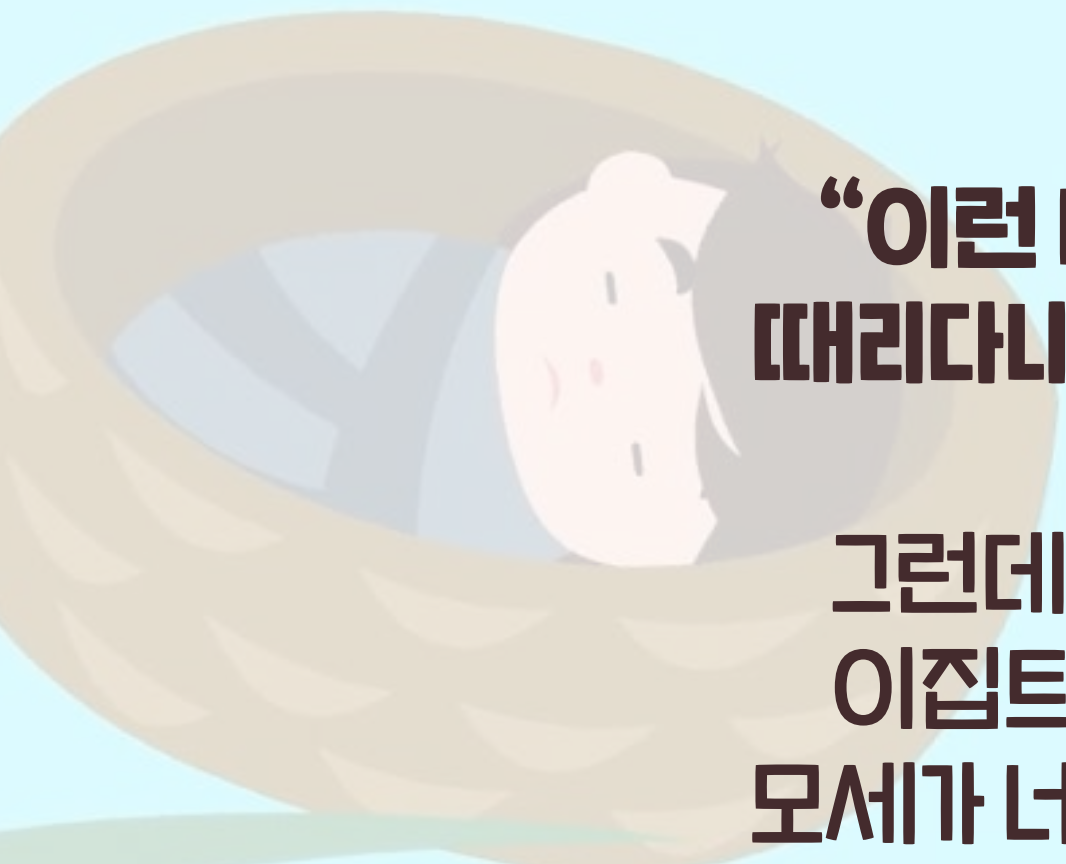


하루는 모세가 길을 가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혹하게 때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절 때리지 마십시오!
사람 살려요...!사람 살려요...!”**

힘이 세고 체격이 건장했던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이집트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A baby is lying in a woven basket, partially covered by a blue cloth. The basket is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stylized green plants and a yellow sun-like shape in the upper right.

**“이런 나쁜 녀석을 봤나! 악한 사람을
때리다니! 어디 너도 한 번 당해볼테냐?”**

그런데 잠시 후, 모세에게 맞고 있던
이집트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달려드는 바람에
그만 이집트인이 죽고 만거죠.

“어... 어...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당황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모래밭에
묻어두고는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자신만 그 일을 비밀로 한다면 아무도
모를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그 날 그 시간에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